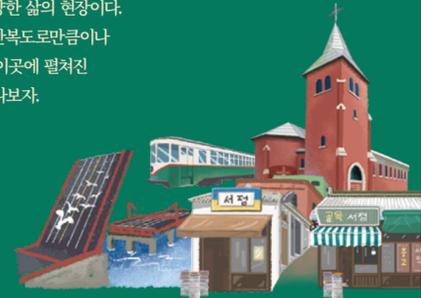


#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HISTORY TRAVEL

부산 原도심은 역사가 만들어낸 다양한 삶의 현장이다. 구비구비 돌아가는 산복도로만큼이나 격동의 세월을 겪은 이곳에 펼쳐진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보자.



## 1 부산의 원류, 부산포의 역사를 만나다

- 1 부산진성** 동구 자성로 99  
부산에는 부산진성이 두 개가 있다. 임진왜란을 겪은 부산진성, 임진왜란 이후 세로 만들어져 1895년까지 부산을 지킨 부산진성. 후자의 부산진성을 흔히 자성대 등으로 부른다. 부산진성 서문 기둥들에 새겨진 '서문새야 밤이온후' 라는 글귀가 볼 때, 부산진성은 요새 중의 요새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정상이 있는 진남대도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 2 조선통신사역사관** 동구 자성로 99  
부산은 통신사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였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2011년에 세워진 전시관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2017년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 3 부산진시장** 동구 진시장로 24  
부산진시장은 조선시대 부산진성 서문 밖에서 매일 4일과 9일에 열렸던 부산장에서 유래되었다. 지금도 '혼수와 한복'은 역시 부산진시장으로, 서울 동대문시장, 대구 서문시장과 아울러 전국 3대 시장으로 일컬어진다.
- 4 영가대 본터** 동구 진시장로20번길  
영가대는 조선 후기 통신사 해산제를 지내던 누각이다. 현재 영가대는 조선통신사역사관 옆에 복원되어 있지만, 본디 영가대는 부산진시장 뒤 절로변에 있었다. 지금은 영가대를 둘러싸고 있던 바다가 매립되어 영가대 본터에서 바다 풍경은 볼 수 없지만, 이곳은 평화와 교류의 상징인 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 곳이다.
- 5 정공단** 동구 정공단로 23  
정공단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 전투에서 순절한 부산참사 정발을 비롯한 선열들을 모신 곳이다. 정공단에는 정발기념비와 함께 정발의 막으로 이정한, 첩 매양, 노비 용혈의 비석도 함께 세워져 있다.
- 6 부산진일신여학교** 동구 정공단로17번길 17  
부산 최초의 근대 여학교로, 부산 최초로 1919년 3월 '대한독립단' 운동을 주도하는 등 근대 초기 부산 여성 교육의 출발지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진일신여학교 건물은 근대 초기 건축물 손꼽을 만큼 최소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 7 부산포개항문화관** 동구 중산로 100  
부산의 개항 역사와 독도지킴이 안용복을 기리는 곳으로 안용복이 두 번에 걸쳐 일본에 건너갔던 행적과 부산포-두모포매관 등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8 충산공원** 동구 성북로36번길 46  
임진왜란의 첫 전투인 부산진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성을 허물고 그 자리에 왜성을 쌓았다. 그리하여 현재 충산공원에는 왜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 2 이바구가 살아있는 초량동 산복도로

- 1 초량상해거리** 동구 중앙대로179번길 1  
개항 이후 청국 영사관 및 조계지(租界地), 개항장에 일본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 설치되면서 화교의 집단 거류지로 조성되었다. 1993년 부산시가 상해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을 기념하여 이곳을 상해거리로 명명하였다. 상해문, 동화문, 차이나타운이라고 쓰인 큰 문 등 5개의 문을 다 비어 초량상해거리를 온전하게 구경했다고 할 수 있다.
- 2 구 백제병원** 동구 중앙대로209번길 16  
백제병원은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종합병원이었다. 내부가 매우 바뀌었지만, 건물 외형은 신축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2014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1층은 카페로 단장되어 있는데,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근대건축물의 상징인 붉은 벽돌 건물을 감상해 보기를 추천한다.
- 3 남선창고 터** 동구 초량로13번길 53  
남선창고 터는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적 창고인 남선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당시에 서울과 함경도를 잇는 철길이 없어 함경도 일대에서 장은 명태를 부산으로 가져와 남선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경부선을 통해 서울로 수송하여 '초량 명태고방'이라고도 불렀다. 2009년에 철거되어 지금은 유명 마트가 들어서고, 남선창고 때의 붉은 벽돌 담장만 남아 있다.
- 4 168계단·김민부전당대** 동구 영초윗길 24 / 동구 영초윗길 26번길 14  
부산형에서 산복도로를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168계단이다. 2015년 '초량 168계단 산복회랑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길이 61m의 모노레일이 생겼다. 168계단 아래에서 30계단을 오르면 김민부전당대에 도착한다. 김민부는 동구 수정동 출신이며 가족 '기리'라는 마을,을 작사한 시인으로 31살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이곳에 올라, 부산항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부산항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5 장기거리기념 터 나눔센터** 동구 영초윗길 48  
장기려는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이자 사회 활동가이다. 그 자신이 피란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한 명 없는 부산에서 피란민-도시빈민 등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에 2013년 부산 동구청은 그의 행적과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거리기념 터 나눔센터를 개관하였다.
- 6 민주공원** 동구 민주공원길 19  
부산의 민주화 운동사를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공간인 민주공원은 1979년 10월 17일에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여 설립된 20주년인 1999년 10월 16일에 개관하였다. 2019년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부산의 민주항쟁사, 더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민주공원에 꼭 가볼 것을 추천한다.



## 3 중첩된 시공간의 기억, 부산 '원도심'의 근대유산

- 1 부산항 제1부두** 동구 중앙대로 24 일대  
부산항은 1976년 개항된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이다. 부산항 제1부두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 철도와 한탄을 연계하여 일본-부산-서울-만주를 잇는 연륙 연계항 구축을 위해 일제가 건립한 것이다.
- 2 부산본부세관** 동구 중앙로 20  
개항 초기 관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설립된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자주권을 상실하였지만, 광복 이후 관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옛 건물은 1979년 도로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되고, 현 건물은 1982년에 건립되었다. 현 청사 조형의 '세관박물관'에 가면 부산항과 세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3 새마당매추 기념비** 동구 중앙대로 일대  
개항기 중구 중앙동 일대의 매추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일제강점기 때 영선산 일대를 무너뜨려 약 14만㎡를 매립하여 중앙동 사거리 일대에 넓은 평지가 만들어졌다.
- 4 해관로** 동구 해관로 일대  
부산해관은 인천-원산해관과 함께 개항장에 설치된 대표적인 지방해관이다. 부산항이 근대 항만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 5 복병산길** 동구 생길-복병산길 일대  
복병산 일대 근대문화유산으로 일본인 데시자 지체, 부산기상관측소, 복병산 배수지 등이 있다. 특히, 부산기상관측소는 항구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건물 옥상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장관이다.
- 6 부산근대역사관** 동구 대청로 104  
1929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설립되었고, 1949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 미문화원으로, 2003년부터는 부산근대역사관(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7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동구 대청로 112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 부산지점으로 개칭하였고, 6.25전쟁 당시 화폐 개혁이 단행된 곳이다. 2022년 인근의 부산근대역사관과 통합하여 '부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된다.
- 8 백산기념관** 동구 백산길 11  
독립운동가, 민족 교육자, 민족 자본가, 민족 언론의 선구자였던 백산 안희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이다.
- 9 한성1918/구 한성은행 부산지점** 동구 백산길 13  
1918년 우리나라 최초 은행인 한성은행의 부산지점으로 현재는 복합 생활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 5 원도심 시장에서 추억하는 피란민의 삶과 먹거리

- 1 자갈치시장** 동구 자갈치해안로 52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관광지에서 출발한 자갈치는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부산 지역인과 피란민들의 생존을 위한 싹터였다. 우리 어머니로 대표되는 자갈치 아이들들의 활기와 악구구, 고단한 노동과 일상이 전개되었던 곳이며, 삶에 대한 생명력이 솟아나는 곳이었다. 자갈치시장에는 피란민들의 구황식품으로 현재 자갈치시장의 명물이 된 공징어와 해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 2 국제시장** 동구 국제시장2길 25  
광복과 더불어 귀환동포들이 생활근거지로 모여들어 터를 잡고 노점을 차리면서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본래 '도매기시장'에서 출발하여 6.25전쟁 중에는 부산으로 몰려든 피란민들로 그야말로 성사를 이루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겨 찾는 우리네 재래시장이면서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면 꼭 둘러보는 명소가 부산에서 최초로 도심지 역할을 했던 이곳에는 부산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골목들이 수도 없이 이어져 있다.
- 3 부평 강동시장** 동구 부평1길 39  
6.25전쟁 당시 인근 미군 군용물자 중 과잉과 생선을 담은 통조림을 주로 거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입제품 골목-외재골목이라 하기도 하고, '도깨비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평 강동시장의 음식들은 6.25전쟁 당시 많은 피란민들을 먹여 살렸다. 먹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팔아야 했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먹어야 했던 절박함이 있었던 곳. 먹을 것이 변변찮던 피란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곳이었다. 이곳에서 유류, 무주전류, 단말족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 4 보수동 책방골목** 동구 책방골목길 16  
6.25전쟁 당시 미군들은 자신들이 보던 잡지를 팔기 위해서, 피란민들은 자신들의 책을 팔아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들면서 보수동 책방골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잡지, 만화, 학습서, 고서적, 미술 서적, 화집, 사전류, 소설, 무렵지, 기독교 서적 등의 현책을 팔고 있는 이 골목은 부산의 명소가 되어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오래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교차되는 길목이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 5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동구 대청로99번길 5-1  
1924년 10월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소속 대청동 성당으로 설립되었고, 6.25전쟁 때에는 피란민 수용 시설로 사용되었다.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건물은 건립된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상당 건축물인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종교시설이자 구호시설로 피란민들에게 물과 미음의 안식처였던 곳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 6 피란수도 심장부를 걷다

- 1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는 가히 부산 근현대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은 일제강점기 경남도청이자 피란수도 시기에는 정부청사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을 마주 보고 각각 왼쪽 오른쪽에 있는 현재의 법학 대학원 건물과 국제관 건물은 피란수도 시절 사범부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음미해보고자 한다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일대를 가볼 것을 추천한다.
- 2 전차** 서구 구덕로 225  
전차는 힘을 동력으로 하여 궤도 위를 달리는 차량으로 부산에 처음 등장한 근대적인 교통수단이었다. 1915년 부산진에서 초량 구간이 운행되면서 부산에서 전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 5월 19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전차 운행은 중단되었다. 현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전시 중인 전차는 당시 운행 주체였던 남선전기주식회사가 동아대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에 맞춰 2011년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 3 임시수도기념거리**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일대  
임시수도 기념거리는 서구 부민동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입구부터 임시수도기념관 사이 거리 500m 구간에 조성되어 있다. 거리가 조성된 도로명은 임시수도기념로이다. 입구에는 대한민국 임시수도기념거리라는 입간판이 서 있다. 매년 8월 18일을 전후하여 '피란수도 부산 문화제 야행' 축제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 3a 임시수도기념관**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  
6.25전쟁 때 피란수도였던 부산의 역사를 기념하는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산하 박물관이다. 1926년 8월 10일에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건립된 2층 목조 일본식 주택으로, 이후 1950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으며, 6.25전쟁을 지휘하였던 역사적 장소이다. 건물 자체의 역사성과 피란수도 부산을 살피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 피란 생활 체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이해하는 역사 교육기관이다. 2018년 11월 6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546호로 지정되었다.
- 4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구 남선전기 사옥, 상공부)** 서구 까치오거리 252  
남선전기는 1961년 경성전기 조선전업과 함께 3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되었다가 1982년 다시 한국전력공사로 바뀌었다. 구 남선전기 사옥은 1932년에 남선전기 사옥으로 지은 건축물로, 부산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며 한국 근대 시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32년 건축 당시의 내부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인조 대리석 소재의 계단실 난간, 벽면의 대형 금고, 라디오미터 등과 일부 목재 문도 잘 남아 있어 현재도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로 사용되고 있다.



## 7 부산 피란민 마을의 그때 그 시절

- 1 감천문화마을** 서구 감내1호 200  
한국의 마추픽처-산토리니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1965년 중구 보수동에 본부를 두었던 대국도 신자들과 피란민들의 집단 거주지로 형성된 곳이다.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오도 같이 통하는 미로 골목길의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어린왕자와 사막여우'가 있는 포토존에서 감천문화마을의 역사를 되새기고 잊지 못할 추억거리도 만들어 보기를 추천한다.
- 2 아이동 비석문화마을** 서구 아이로 42  
구한말 일본인 거류민단이 들어오면서 빈민촌이었던 이곳에 화장장과 공동묘지가 들어섰고 6.25전쟁과 피란, 부산 시내 판자집 철거정책으로 산으로 떠날려 온 사람들이 공동묘지의 비석과 성상을 그대로 건축자재로 삼아 집을 짓고 살던 마을이다. 현재도 집의 건축자재, 담배벽에 비석이나 성상이 박혀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3 안창마을** 동구 안창로89번길 일대  
6.25전쟁 때 모였던 피란민들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었다. 안창마을은 부산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일컬어지는 도심 속 오지이다. 이곳에는 루미네 수녀 기념관이 있는데, 가난한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핀 그녀의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수성산 정상에는 통일교 관련 시설물들도 있다.
- 4 매죽지마을** 동구 성남이로 일대  
1917년 매죽지가 조성되며 인가가 들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형성된 피란민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도심 속 오지로 알려져 있다.
- 5 우암동 소막마을** 남구 우암병로9번길 일대  
일제강점기 우암동 일대에는 일본으로 소를 수출하기 위하여 소 검역소와 소마구간이 있었다. 해방 이후 귀환동포와 6.25전쟁으로 피란민이 몰려들면서 우암동 소막사는 피란민 수용소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과정에서 피란민들이 소막사를 개조하여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소막마을은 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 6 당감동 아바이마을** 부산진구 백양대로34번길 일대  
당감동 피란민 마을은 오늘날 당감1동의 가야역 관리의 말 마구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휴전 후 거제도도 피란민들처럼 피란민들이 이주해 당감시장 뒤편에 아바이마을을 만들었다. 함경도식 냉면을 파는 이 마을 가게에서 아바이마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4 대중문화 속 근현대 부산을 발견하다

- 1 옛 부산역 터** 동구 중앙대로 11 일대  
부산역은 경부선이 개통됨에 따라 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10년 10월에 역사(驛舍)를 준공하였으나, 1953년에 대대차가 발생하여 역사가 전소하였다. 이후 중구 중앙동에 기동열차 역사로 사용하다가 1969년 6월 10일 지금의 위치에 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 2 40계단문화테마거리** 동구 중앙대로 73  
40계단은 1950년 6.25 피란 시절 교통 행정의 중심지였던 중구에 위치하여 많은 피란민들이 그 주위에 판잣집을 짓고 밀집해서 살았다고 바로 앞 부두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로, 그리고 피란 중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 장소로 유명했던, 피란살이의 애환을 상징하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1951년 박재홍이 부른 "정성도아기씨"라는 곡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등 당시 영주동 뒷산, 동광동, 보수동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10만이 넘는 피란민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장소였다.
- 3 용두산공원** 동구 용두산길 37-28  
용두산이라는 지명은 산의 모양이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를 건너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용두산 주변에 초량왜관이 있었고, 1876년 개항기에는 그 일대가 일본인 전관 거주지가 됨에 따라 일본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1915~1916년에 공원이 조성되었다. 현재 공원 내에는 관광용 탑인 120m 높이의 '부다타워(전망대)'가 있는데, 멋진 부산 야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반드시 둘러야 하는 곳이다.
- 4 밀다윈 터** 동구 광복로 59-1  
6.25전쟁기 피란 시절 광복동에 있었던 다방 밀다윈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금강다방, 스타, 르네상스, 아자수 등등 문인들을 비롯한 예술가들의 아지트로서,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허무를 술로 달래던 한국 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다. 당시 부산의 많은 다방 중에서도 광복동의 밀다윈은 김동리의 소설 '밀다윈 시대', 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대표적 공간이 될 만하다.
- 5 BIFF광장** 동구 비프광장로 36  
남포동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영화의 거리였다. 1914년에 영화 상설관 '육관(旭館)'이 상설관 경영을 개시한 이후에 보래관(寶來館), 초량좌(草堂座), 행차(幸車館), 부산 광장 등이 들어섰다. 8.15 광복 이후에도 이곳에는 극장들이 자리를 잡아 1960년대에는 20여 개소의 극장이 밀집되었다. 1996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면서 극장가를 새롭게 단장하고 그 일대를 자연스럽게 BIFF광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사상구

부산진구

남구



# 부산 原도심 문화탐방 지도

서구

동구

사하구

중구

영도구



BUSAN, 百聞이 不如一見

##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 1 코스 부산의 원류, 부산포의 역사를 만나다
- 2 코스 이바구가 살아있는 초량동 산복도로
- 3 코스 중첩된 시공간의 기억, 부산 '원도심'의 근대유산
- 4 코스 대중문화 속 근현대 부산을 발견하다

- 5 코스 원도심 시장에서 추억하는 피란민의 삶과 먹거리
- 6 코스 피란수도 심장부를 걷다
- 7 코스 부산 피란민 마을의 그때 그 시절
- 8 코스 영도, 근대 조선업의 발상지



1 자갈치시장

1 영도다리

3-1 영도웰컴센터

2 강강이예술마을

4 대풍포 매죽기념비

5 영도전차중점기념비

6 한국 근대 조선발상 유적지

1 감천문화마을

2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3-2 임시수도기념관

3-1 임시수도 기념거리

4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구 남전전기 사옥, 상공부)

4 보수동 책방골목

3 부평 광릉시장

5 BIFF광장

1 자갈치시장

6 부산근대역사관

2 국제시장

5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5 민주공원

5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4 밀다원 터

5 북병산길

5 용두산공원

5 40계단 문화테마거리

2 해관로

2 부산항 제1부두

1 옛 부산역 터

1 부산본부세관

3 새마당매죽 기념비

1 초량상해거리

3 남선창고 터

3 구 백제병원

2 장기려기념 더 나눔센터

4-2 김민부전망대

4-1 168계단

6 부산진 일신여학교

6 부산포개항문화관

8 증산공원

5 정공단

3 부산진시장

4 명가대 본터

2 조선통신사역사관

4 매죽지마을

3 안창마을

6 당감동 아바이마을

5 우암동 소막마을